

장학월보

2010
제207호(통권426호) **5**

- 장학특집 / 장학방법 개선
- 교육정보 / 2010 달라지는 경남교육
-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아이들이 가전제품을 놀이도구처럼 인식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및 학교에서도 가전제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다음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이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에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2 냉장고, TV, 세탁기에
올라가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합니다!



3 세탁기, 냉장고 등에
손, 발을 넣거나 끼이지 않도록 합니다!



4 전자레인지, 오븐 등
뜨거운 물건은 조심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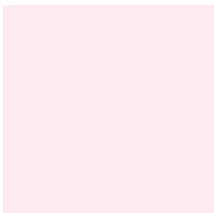
5 가전제품 **콘센트를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0. 5 제207호(통권 426호)



02 권두언 04 장학현장 06 장학칼럼 08 특집 / 장학방법 개선

- 따뜻하고 정겨움이 있는 경남교육 / 최진명
- 새로운 교육 수단, IPTV / 김영범
- 교육본질 충실과 교육현장 변화를 추구하는
경남 초등장학계획과 장학의 실제 / 김주수
- 공감과 소통으로 교내장학 활성화 / 김희태
- 교내 자율 장학 활성화를 위한 동료장학 방안 / 서역섭
- 교실 수업 개선 중심의 자율장학 / 강순복
- 학교현안 해결사! 장학지원단 운영 / 신현인
- 봉덕초등학교, 요청 장학의 문을 열다 / 오진환
-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장학 / 최광우
- 장학 활동으로 명사(明師)가 되는 그 날까지 / 강은영
- 수업 동영상을 활용한 동료장학활동 / 김성호
- 맞춤형 장학을 통한 좋은수업 기술 나누기 / 손형근

32 전문가 초대석 34 수업기술 나누기

- 건강상식 - 저는 왜 수술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나요? / 장석원
- 뉴스포츠로 함께하는 즐거운 체육수업 / 이상근

38 교육정보

- 2010. 달라지는 경남교육 / 이병만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대만 타이베이한국학교 소개 / 정중훈

46 이색 교육현장

- 맞춤형 교육으로 향하는 학부모 집중상담주간 운영 / 여중희
- 알알이 맺히는 명곡 4가지 열매 / 강봉호
- 여섯 색깔이 빛나는 경남은혜학교 / 김영현
- "학교도서관이 마을 사랑방 되었어요." / 강미화

55 참여마당

- 교 원 - 내 삶의 에너지 / 김재식
- 학부모 - 효(孝)는 예쁜 습관에서 / 김유경
- 학 생 - 숲의 고마움을 알게 해 준 지리산 자연 휴양림 / 정인해

62 향기나는 서가

- 날마다 우는 남자 / 성복선

64 음악이야기

- 죽음의 무도 / 강은령

66 지상갤러리

- 옛날에 / 차진복
- 살아가며 / 김선애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 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6월호 모집 기간 : 2010년 5월 16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0년 5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 :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 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김주수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배정철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재철,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따뜻하고 정겨움이 있는 경남교육



한비자(韓非子) 『십과편(十過篇)』에는 지자막약부(知子莫若父)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알아보는 데에는 부모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도 대가족을 이루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4대가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은 자연스럽게 사회 교육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집성촌을 형성했던 경우에는 일가(一家)의 모든 어른들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 바른 삶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최초의 스승이자 작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자녀가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모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최소 단위로서 기본예절과 공동체 의식을 몸에 익히고, 위계질서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켜 온 예전의 교육 기능을 요즘의 가정에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 교육가족 여러분!

사회가 발달하고 제도가 분화함에 따라 가정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사회화 교육 기능이나 학교에서의 교육 기능은 불가결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경남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학교에서도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노력하는 경남교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정겹게 생각하는 경남교육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0. 5.

경상남도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진명



01



02



04



03



05



06

- 01 의령교육청 - 공류벚꽃축제
- 02 경남학생교육원 - 8기 수련활동
- 03 김해교육청 - 장애인식개선 꿈의 축제 콘서트
- 04 남해교육청 - 신규교사 멘토링 결연식
- 05 유아체험교육원 - 진주 해광학교 방문
- 06 사천교육청 - 교원능력개발평가 담당자연수회



07—



08—



10—



09—



11—

- 07 진해교육청 - 고 한주호 준위 추모 수업
- 08 덕유교육원 - 수련활동 모습
- 09 하동교육청 - 새교육가족 하동사랑 에듀투어
- 10 함안교육청 - 청소년과학탐구대회
- 11 낙동강학생수련원 - 수련활동 모습
- 12 진주교육청 - 통합특수학급 담임교사 연수회



12—

새로운 교육 수단, IPTV



김 영 범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정보교육과장

2010년.

교육현장은 e-러닝, u-러닝, m(Mobile)-러닝 시대를 지나
r(Robot)-러닝시대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빠른 정보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지나가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교육환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IPTV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T-러닝의 수단이 아닐까?

교육수단의 변화는 교육목표의 변화가 아님을 우리는 꼭 직시하여야 한다.

간간히 교육수단 즉 매체의 활용에 급급하여

실질적인 교육목표에 도달됨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지

새로운 교육수단이 현장에 투입될 때마다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목표를 도달하는 데 있어 편리하고, 효과적인 수단 또는 매체가 있다면
교육현장에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이미 모바일 문화에 접하여 있다.

교육현장의 선생님들도 이제 스스로 변화하고자 한다.

2010년 3월 IPTV연수에 참여한 열기는 그 분위기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변화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의 수단이나 교수·학습 방법들도 부단히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접근성의 편리를 가진 TV와

정보의 다양성을 가진 인터넷의 장점을 접목한 IPTV

처음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IPTV는 교수·학습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함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본다.

교육의 미래! 정보화교육의 선진화에 달려 있다.

*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TV의 리모콘 기능과 인터넷의 통신기능을 접목시켜, 동영상 콘텐츠, 방송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TV수상기로 제공하는 시스템

교육본질 충실과 교육현장 변화를 추구하는 경남 초등장학계획과 장학의 실제



김 주 수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1. 머리글

“이 사회는 많은 사람에 의해 변화하고, 많은 사람은 한 사람에 의해 변화한다!”

어느 영화의 마지막 장면 자막으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던 감동의 잔잔한 외침이었다. 특히 현 사회로부터 교육현장에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는 교육자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사명감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이 시대 장학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중책과 역할을 재인식하게 한다.

2010학년도 들어 학교자율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그 핵심인 학교교육과정 자율화가 학교교육에 적용됨으로써 지금의 교실수업 현장에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공존하게 되었고, 특히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적용되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대비하는 등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의 자율화와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풍토 조성 and 학교중심의 지원 장학의 필요성 확대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장과 장학담당자들의 리더십 향상과 전문성 및 책무성 발휘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육력을 증대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돌볼 수 있는 교육적인 기능과 학생들이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습적인 기능을 성실히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장학의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일선 학교가 교육본질에 충실하며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봉사적이고 지원적 장학지도를 실시

하고자 정기 장학지도 등 전통적인 장학지도 방법을 과감히 개선하여 지난 3월초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들을 요약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2. 장학의 근거와 목적

장학지도의 법적인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장학지도)에 두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장학지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 학교에 미리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교육청은 장학의 목적을 교육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에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 돕고 노력하도록 조성하고,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지도·조언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며, 교사의 교수 활동에 영향을 주어 학생의 바람직한 학업성취를 제고하는 데 두고 있다.

3. 장학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

우리교육청은 그 동안 꾸준히 장학지도 방법을 개선해 왔다. 지난 2008~2009학년도에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현장방문 장학지도를 지역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하고 학교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장학을 운영해 왔으며, 학교 자율화에 따른 교내 장학활동 강화와 장학담당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전문직 연수를 운영해 왔다.

그 동안의 1회성 정기 장학지도로 인한 학년 초 학교 부담 과중과 형식적 장학지도라는 인식이 많았던 정기 장학지도를 폐지하고 학교 맞춤형 장학지도를 전개하며 학교 장학 담당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신규 장학사들의 연수를 강화해 왔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 간 소통 및 장학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장학 지원체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4. 2010년 장학의 기본 방향

2010학년도 장학의 주안점을 학교 단위 교내 장학의 활성화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두고, 기존의 장학지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시 중심의 소극적 장학지도에서 참여 중심의 적극적 장학활동을 전개하며, 보여주는 장학에서 교내 장학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실질적인 장학으로 전환하여 학교 단위의 교내 장학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 장학 과제별 추진 내용과 실제

2010학년도 장학의 주요 과제로 학년 초 정기 장학지도를 폐지하고 상시 장학 지원 체제를 운영하며, 지역·학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장학 운영과 학교 자율화에 따른 교내 자율장학을 강화하고, 장학 담당자의 책무성과 전문성 함양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시 장학 지원 체제 운영

먼저 장학활동 역할 분담에 있어서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장학 협의를 주관하고 지역교육청은 학교 현장지원 장학을 주관하며 학교장은 교내 자율장학을 주관함으로써 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 간 연계로 맞춤형 장학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되도록 하고 있다.

참여 중심의 장학 활동 전개 방법으로는 학교평가나 학교 현장감사 참여를 통하여 장학지도를 전개하거나 수업공개일 또는 교내 연구수업 등을 통한 학교 중심의 수업 장학과 학교 행사나 교육과정위원회와 교내 연수회 등을 활용한 참여 장학, 연구학교 지도를 통한 장학활동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 계획·실천·성과 단계에 따라 다양한 장학 방법을 활용한 장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장학사별 연간 장학활동 계획을 학교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학교평가와 학력평가 결과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을 전개하며 인터넷, 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 부담을 경감하고, 개인별 장학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화 및 장학활동 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학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컨설팅 장학 전개

학교경영과 학급경영 및 수업지원 등을 위하여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별 요구에 따른 장학 주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주제에 따른 장학 지원팀을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학교별 연 1회 이상 주제 특성에 따라 반일제로 컨설팅 방법을 적용한 장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 지역·학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장학 운영

지역교육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장학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장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복식학급 및 소인수 학급의 수업 개선을 위한 지구별 자율장학을 실시하거나 소규모 학교 간 협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협력 장학 운영 또는 생활(안전)지도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지역 학교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장학 협의체 구성, 선비 정신, 다례교육, 지역축제, 환경교육 등 지역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간 협력 장학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장학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사이버 장학 홈페이지를 7월에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지역교육청별 사이버 장학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단위 사이버

장학코너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단위 학교 동료 장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 장학을 위한 장학 요원 육성 및 인력풀 구축·활용의 일환으로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수업 장학활동 지원과 현장장학요원 위촉 및 장학활동을 지원하며, 교과 전문가 발굴 및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장학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학교평가 결과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주요 사안 발생 등 학교 특성에 따라 장학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사례 일반화를 위한 장학활동을 전개하며 주요 시책 추진 학교에 대한 지원 장학과 학교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종합 장학의 성격을 띤 특별 장학지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지도 결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라. 학교 자율화에 따른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학교 자율화에 따른 교내 자율 장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교원의 특성에 따른 교내 자율장학 계획 수립 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학력 향상을 바탕으로 두고 장학의 내용과 방법, 평가 및 환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내 장학 계획에 지역교육청의 담당 장학과 컨설팅 장학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며, 지역교육청은 학교의 교내 자율 장학계획을 취합·분석하여 계획-추진-성과 단계별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지역교육청 장학 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장학 개선과 환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실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들의 수업 공개를 학기별 2회 이상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 공개를 확대하며, 동료 수업 장학 강화와 자기 수업 모니터링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실 특성에 알맞은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자율장학 방안으로 동학년 교과별 선진도 학급 운영과 학년 간 통합 체험학습 운영 등을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

마. 장학담당자의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

교내 자율장학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과 장학지도 전문성 향상과 장학담당 전문직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교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 연수회 기회를 확대하고 경력별 전문직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경력 장학사들의 연수는 연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교육청별 개선된 장학방법 안내 및 협의과정을 거쳐 지역교육청별 장학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중심의 장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년 미만의 경력이 적은 장학사를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의 집중 연수회를 개설하여 장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지원의 전문적 소양을 신장하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6. 맺음말

우리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은 그 동안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둔 내실 있는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바람직한 결실들을 거두어 오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선도자인 학교장의 전문적인 리더십과 교사들의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전문직의 봉사정신과 지원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장학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무능한 교장이 있는 좋은 학교를 본 적이 없고, 훌륭한 교장이 있는 침체된 학교를 본 일도 없다. 그리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던 학교가 성공적인 학교로 바뀌고, 유감스럽게도 매우 훌륭했던 학교가 급속도로 침체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 각각의 경우에 학교의 발전과 침체는 교장의 질에 달린 것이다.” 라는 Fred M. Hechinger의 말이 학교자율화 확대의 이 시대에 장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준다.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학교 자율장학 지원으로 학생 중심의 바람직한 교육을 지향하며 제시된 우리 경남교육의 장학 방향과 실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자인 우리들이 이 시대 교육현장의 바람직한 변화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교육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공감과 소통으로 교내장학 활성화



김희태
거제 계룡초등학교 교장

I. 학교장 장학의 필요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가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의 질 향상의 결과가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고 보면 교사는 교육전문가답게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오랜 교단 경험에서 나온 교육철학과 교육방침을 바탕으로 한 교내 자율장학은 매우 절실하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즐겁고 신나는 가운데 행복하게 된다면 학교의 교육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되어 아이들이 더욱 더 행복해지는 학교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장학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II. 자율과 책임의 조화로운 장학활동

1. 인간관계 개선으로 개방적인 학교 조직 풍토를 형성한다.

자율 속에 책임있는 장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장학방법에 따른 부담 및 기피 현상을 줄이고 장학 담당자인 관리자와 교사 및 교사 상호간에 보다 부드럽고 허용적인 학교 조직 풍토를 형성하고, 이해와 협동의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리자와 교사 간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교내 자율장학 협의체 단위의 상호지원 활동을 실천하고, 교직원의 친목과 화합, 교내 직원 조직의 협동과 발전을 위하여 인근 학교 간 교직원 체육행사, 교직원 등반대회 및 방학 중 직원 연수 등의 다양한 친목행사를 실시하고, 각종 장학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방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과 각종 연구 활동 지원에 노력한다.

2. 교내 자율 장학 활성화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가. 상담장학

요일별로 각 학년의 교실을 방문하여 담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매월 첫주에는 담임과의 상담을 통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애로점이나 학교에 바라는 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첫주에 상담한 내용 결과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상담장학은 학력향상에 중점을 두어 교실 수업 개선 중심의 교원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준다.

나. 수업장학

수업연구 중심의 교내 자율장학 활동을 활성화하되 한 번의 장학활동으로 연구수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된 수업의 보완, 수정작업을 거쳐 다음 연구수업에서 변화된 교수·학습기술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기술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다. 각종 연구동아리 운영

교내 연구 동아리(좋은수업, 도예, 영어회화, 배구, 과학탐구, 리코더) 활동을 매주 목요일(15시 30분~16시 30분) 동아리 활동 시간을 통해 교사 1인 1기능을 가짐으로써 어떤 교육활동 장소에서도 자신의 기능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III. 맺으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듯이 학교의 질은 학교장의 질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장은 각종 장학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리자와 교직원간의 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교내 자율 장학 활성화를 위한 동료장학 방안



서 석 섭
함양초등학교 교감

1. 수업 전문가로서의 교사

교직은 전문직이다. 교직이 전문직이고 교사들이 전문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까? 교사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수업’을 전문가답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교사가 전문직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료장학

교사들이 행정가에 의한 장학보다는 동료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료교사에 의한 상호장학은 전문적 수업기술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동료장학은 교사의 수업기술 향상과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교사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협동적인 노력의 과정이다. 단위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동료장학은 동료교사간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3. 동료장학 방법

가. 수업관찰전 협의회

동료교사들이 공동으로 수업공개를 계획하고 수업설계를 하는 과정이다. 동료교사들 간의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업공개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수업연구과제 또는 수업개선과제를 확인·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략적이고 잠정적인 해결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수업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후 수업관찰 이전까지 사전 교재연구를 진행하고, 교수·학습지도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업지도안을 완성하며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나. 수업관찰과 분석

동료장학 담당자는 수업자의 수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업을 관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실수업의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업관찰과 분석방법의 선정이 중요하며, 수업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나 자료를 획득해야 한다. 이때 수집된 정보나 데이터는 수업자의 수업개선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업 관찰법에는 체계적 관찰법, 비체계적 관찰법, 녹음법, 녹화법 등의 다양한 자료수집 방식이 있다.

다. 관찰 후 협의회

수업참관이 끝난 후 동료장학 담당자는 수업관찰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수업자와 함께 관찰 후 협의회를 갖는다. 이때 동료장학 담당자와 교사는 함께 수업을 재구성하고 동료장학담당자의 관찰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녹화와 녹음 등을 통해 교사는 교실 내 행동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관찰 후 협의회는 수업관찰 후 기억이 생생한 당일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4. 수업전문가로서의 긍지

우리 교사들은 좋은수업과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수업장학 담당자와 교사 간의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동료교사에 의한 수업 전 협의회, 수업관찰과 분석, 수업관찰 후 협의회 등의 협동적인 동료장학을 통해서 교사의 수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수업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교실 수업 개선 중심의 자율장학



강 순 복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장

1. 목적

우리 학교의 교내 자율장학은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실 수업 개선에 역점을 두고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기별 2회 이상 공개수업을 실시하며, 그에 대한 동교과 교사들 간의 자율장학 활성화와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수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과학고등학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

2. 공개수업

가. 학기별 2회 이상 공개수업 실시

‘수업 공개의 날 또는 수업 공개 주간’을 통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는 학기별 2회 이상 공개수업을 실시하며, ‘수업 촬영 동영상’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이 때 참관 대상은 학부모, 동료교사, 교장, 교감, 외부장학요원 등으로 한다.

나. 공개수업 내실화 기반 조성

1) 수업 전문성 지원단 구성·운영

교과군별로 수업 능력이 검증된 교감, 각 교과부장 등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정보를 가진 교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그에 대한 지도 조언을 통하여 수업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수업 멘토링제 실시

전업교사(Mentee)와 경력교사(Mentor)가 결연을 맺어 수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문제 해결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수업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료 교사간 수업 참관 활성화

동료 교사 상호간 수업 참관 후 협의회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좋은 수업의 모델을 발견하여 적용한다.

4) 상시 수업공개 체제 구축

학부모 요청 시 수업공개 실시와 탄력적인 수업공개를 실시한다.

5) 수학·과학 교과 주제별 세미나 실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창의적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을 위하여, 주 1회 수학·과학 교과 중심으로 주제별 세미나를 실시한다.

6)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활용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과제탐구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7)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제공

과학전람회, R&E(Research & Education), 올림피아드 등의 지도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한다.

8) 통합교과 프로그램 운영

대학 진학의 필수 요소인 논술 및 심층면접을 대비한 통합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 우수교원 초청 특강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본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심으로 연 2회 우수 교원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3. 공개수업을 통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공동체 구성원(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 평가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4. 기대되는 성과

가. 공개수업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한 지표로 적용한다.

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수업의 질 제고와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다.

다. 교실 수업 개선 중심의 교내 자율장학 활동이 활성화된다.

라.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학교현안 해결사! 장학지원단 운영



신 현 인

경상남도 청녕교육청 장학사

1. 필요성

변화하는 시대의 많은 교육정책들은 우리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현장지원체제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거대조류는 많은 권한과 책임이 계속 학교로 위임되어서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으며 각종 새로운 교육정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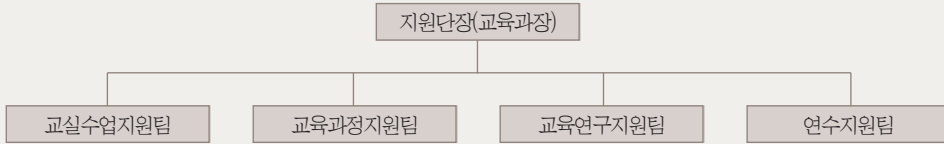
이런 교육정책의 변화, 학교의 변화는 장학활동의 변화로 연결되어진다. 장학은 학급 내에서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수·학습과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를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하는 활동이며, 교육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문적 지도성을 발휘하여 교사의 직무수행을 촉진하는 활동이고, 또한 교육 체제 속에서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학지원단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2. 장학지원단 운영 사례

몇 명의 장학사가 할 수 있는 장학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정 교과나 영역에 전문성을 갖추고, 수업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교원들의 수업결손과 업무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가. 지원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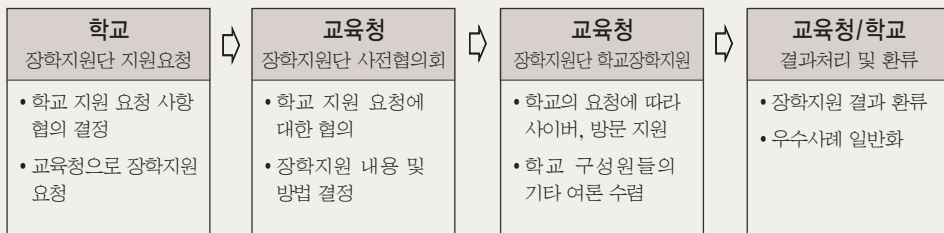


나. 팀별구성 및 역할

구성	인원	역할	비고
교실수업지원팀	교감1, 교사3, 장학사1 (수업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설계 및 지도안 작성 지원 수업공개 후 추수 지도 및 협의 수업자료 제작 지원 등 	교감 - 팀장
교육과정지원팀	교감1, 교사3, 장학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개정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 연구 지원 유어, 이방, 대지 소규모협력교육 과정 운영 지원 	
교육연구지원팀	교원4, 장학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개인 연구활동 멘토링 지원 연구,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사 연구 동아리 활동 지원 	일부 퇴직교원 구성계획
교육연수지원팀	교감1, 교사3, 장학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학교 연수 강사 지원 새로운 교육정책 홍보 및 강의 지원 교원들의 각종 교육의견 수렴 분석 	

- 장학지원단은 학교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구성하였음.
- 장학지원단 구성원은 관련 영역 우수 실적 교사, 학위소지자 등으로 구성하였음.
- 교육연구팀은 일부 퇴직교원으로 구성하여 지원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다. 장학지원단 지원 절차



3. 기대효과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상시 장학지원체제 구축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봉덕초등학교, 요청 장학의 문을 열다



오진환
마산 봉덕초등학교 교장

1. 좋은 학교, 우리가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15일 본교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이 주관하는 요청 장학이 이루어졌다.

‘좋은 학교 우리가 만든다’는 경영관 아래 일련의 교육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 본교에서 요청 장학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운영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수업 공개와 협의회를 통한 수업 기술 공유 등 현재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며 앞으로 보다 충실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 그 동안의 과정들을 공개하고

가. 수업 공개와 참관

이 날의 수업 공개는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당일 수업을 공개한 교사는 모두 11명이었으며, 교내 교원 평가 및 수업 공개 계획에 따라 학부모, 장학 지원단, 동료 평가자 그룹이 수업을 참관하였으며,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교원 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교사	공개 학급 및 교사	공개 과목	학습 주제
5	5-1(교사 변찬진)	국어	분류의 방법으로 소개하는 말하기
	5-2(교사 김혜영)	수학	분수의 크기 비교하기
	5-3(교사 허정은)	수학	규칙에 따라 무늬 만들기
	5-4(교사 서권수)	사회	기후에 따라 주생활의 모습이 다른 까닭 알기
6	6-1(교사 변은정)	미술	대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6-2(교사 조재중)	사회	고려가 북방 민족의 침략을 극복한 과정 알기
	6-3(교사 이미정)	영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계절에 대해 말하기
	6-4(교사 정지원)	사회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고 자신의 생각 말하기
	국어전담(교사 박선정)	독서·토론	논제에 대해 발표와 상대 의견 반박하기
	보건교사(교사 김혜정)	보건	수성 잉크와 유성 잉크의 차이점과 알기
	과학전담(교사 김정혜)	과학	게임중독의 의미와 문제점 알기

나. 학부모 특강

공개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의 특강이 체육관에서 이루어졌다.

수년 간의 교직 경험과 학교 지원의 업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올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 수업 협의회 및 전체 협의회

장학 지도 일정에 따라 5·6학년의 수업 협의회가 이루어졌다.

수업을 참관했던 동료 평가자 그룹과 장학 지원단 중 한 분이 임석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수업자 자평과 간단한 질의 응답 및 참관 소감으로 진행된 수업 관련 협의와 경상남도교육청 중점과제의 학교 현장에서의 실현 여부와 실제적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수업 협의회 이후 이루어진 전체 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본교의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운영에 대한 안내 및 의견 교환, 장학 지원단의 강평으로 마무리 되었다.

전체 협의회를 통해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은 “본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속에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으며, 앞으로 더욱 수업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력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는 지도 조언을 하였다.

3. 봉덕 교육에 대한 더 큰 기대로 맺었습니다.

요청 장학으로의 체제 개선 이후, 도내 요청 장학의 첫 문을 연 본교는 이 날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운영과 교원 평가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시 교내 자율장학 체제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요청 장학은 학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장학을 실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린 요청 장학 지도 결과,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배우는 즐거움 속에 행복한 미래를 여는 학생 중심 봉덕 교육’의 구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더욱 기대된다.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장학



최 광 우
진주 가좌초등학교 수석교사

“수업의 흐름을 끊는 소수의 학생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아동들을 집중하게 하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수학 수업에서는 학습부진아와 우수아의 과제해결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사회 과목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성적 또한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해결 방안은 없나요?”

〈2010학년도 가좌초등학교 ‘수업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주제’ 중에서 발췌〉

이 같은 질문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 보았을 것이고, 교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공통된 연구과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직풍토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교사 개개인이 능력껏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 버림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단위의 노력이나 해결 정보에 대한 공유과정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교육활동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의 곁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과 전문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동료 교사들과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좋은 수업을 위한 방향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수석교사의 존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장학

교수·학습 모형을 근간으로 장학담당자인 수석교사와 수업자가 대면관계로 수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사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방법과 수업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운영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교 전교사는 연 1회 이상 수업 장학(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 4회)을 실시한다.
- 1, 2, 4학년 학급 담임교사는 협동적 동료 장학으로 동학년 공동 지도안 작성 및 실제수업 전개, 수업 관찰 및 분석, 수업 협의의 과정을 통해 수업과정을 분석하고 좋은 수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 3, 5, 6학년 학급 담임 교사와 전담(특수, 보건)교사는 본인의 연구 교과 및 담당교과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별도로 계획한 수업 모형 연수 및 교수·학습 기법 연수를 통하여 수업장학을 실시한다.
- 수업자는 수업 공개 약 2주 전 수업할 과목과 차시를 공개한 후, 수업 전 수석교사와 학습공동체(동학년 중심)와의 협의회를 2~3차례 가진 후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자료를 공동 제작한다.
- 수업 3일 전까지 교수·학습 과정안 최종본의 결재를 득한 후 참관 예정자에게 배부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수업 참관의 대상은 2~3차례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석한 교사 전원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동료교사로 한다.
- 학습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수업활동에 따른 관찰 도구, 방법, 절차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행동, 교사와 학생 상호 작용, 수업 전개 상태, 자료 활용도 등 수업 전반적인 내용을 양적·질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며 분석한 후 수업협의회에 임하도록 한다.
- 수업 협의회는 수업자와의 만남과 학습공동체 협의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수업자와의 만남 시간에는 수업자의 수업의도와 수업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참관자를 위한 소감을 발표하며, 학습공동체 구성원은 수업 전 계획과 수업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얻게 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논의 주제로 삼는다.
- 수업 협의회 사회는 학년부장이 기록은 총무가 담당하며, 수업 전 학습공동체 협의 내용과 수업 전 과정을 촬영(사진, 동영상)하여 수업 당일 자료와 함께 취합하여 수석교사에게 제출한다.(2~3차 수업 전 협의록, 수업 후 협의록, 수업분석표 등)
- 수업 협의회는 - 수업 분석의 8단계 - 과정을 적용한다.
 - 수업의 특성 분류하기
 - 수업에서 드러난 좋은 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
 - 수업과 관련하여 의문스러운 점 질문하기
 - 수업에서 논의하고 싶은 점이나 주제에 대해 제안하기
 - 수업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 조언하기
 - 학생들의 반응, 행동,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기
 - 개선사항 정리하기
 - 자신의 수업에 반영하여 실행하기



〈수업 전 협의회〉



〈수업 활동〉



〈수업 후 협의회〉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장학 연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의 문제 해결 및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두고 수석교사가 다음과 같은 12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매월 2가지의 수업 장학 연수를 실시한다.

- 평가 문항 작성의 실제
- 수업 기술 향상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도서 소개
-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사의 수업 안목 키우기
- 학습자 이해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
- 좋은 수업의 조건과 수업 전략
-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 설계 전략
-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동기 유발 전략
- 체계적인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법
- 수업 참관 및 협의회 방법
- 수업 장학 및 수업 분석에 관한 개념 이해(수업 장학에 대한 동향)
- 수업 분석의 방법과 실제(양적 분석·질적 분석)
- 학습부진 학생 지도 방안



〈수업장학 연수〉



장학 활동으로 명사(明師)가 되는 그 날까지



강 은 영
김해 능동초등학교 교사

1. 시작하며

얼마 전 본교는 2009학년도 6학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력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기초미달 없음. 보통이상 90% 도달’

요즘 교육현장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학력 향상’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학력을 올리고, 학습 부진아를 없애기 위해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며, 장학활동을 활성화 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교육에 있어서 장학은 감독이나 통제의 의미보다는 교사를 도와주고 교수·학습을 개선 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교 장학의 형태도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 되고 있다. 본교에서는 2009학년도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학력향상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학력향상 방안’을 주제로 김해교육청 요청장학을 실시하였다.

2. 요청 장학의 실제

가. 요청장학 일시 : 2010. 4. 23(금)

나. 주제 :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학력향상 방안’

다. 추진 과정

1) 장학지도 요청 내용 선정

- 전 교원이 본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



〈요청장학 협의회 모습〉

인 ‘학력향상’을 요청 장학의 내용으로 선정하여 더 높은 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장학 담당자와의 협의 (장학요원 선정, 현안 문제 해결 등)

- 장학 담당자와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국내외 학력향상 사례, 부진아 지도의 실제, 시스템(조직)부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현황 등을 논의함으로써, 장학담당자와의 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서로 간에 신뢰감이 쌓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장학 실시

- 학교 실태 파악 및 수업 참관, 주제별 학력 향상 방안 등의 내용으로 장학이 실시되었다.
- 본교에서 학력 향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서지도, 웹 기반 학습, 평가 방법 개선, 교원 연수,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업 공개 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의하였다.

4) 장학 실시 후 내용과 방법에 관한 반성회 실시

- 장학 실시 후 장학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반성회를 실시하여 본교의 우수한 사례는 더욱 심화시키고, 부족한 점은 전체교원의 노력과 열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1) 아직까지 요청 장학의 개념 이해와 실행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였다.
- 2) 장학의 방법이 변화되어 요청 장학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학교 및 장학 담당간의 협의 회 과정에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 3) 장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하향식 장학이 아닌 상향식 장학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 4) 관리자와 교사 및 장학 담당자와 전문가 모두가 합심하면 새로운 차원의 장학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맺으며

학교교육이 교육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교사가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장학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교에서 실시한 장학활동은 일 반화 가치가 있는 우수 장학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사 스스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권위적이며 지시적인 장학지도가 아닌 교원의 자발적 참여로 교육을 다 같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장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알맞게 기존의 장학 방법 외에도 사이버 장학, 컨설팅장학, 선택적 장학 등이 더욱 활성화 되어 학생들의 학습지도에 활용된다면 우리도 흔히 말하는 『명사(明師)』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동영상 활용 동료장학활동



김성호
하동북천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자율장학은 교사들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북돋아주는 활동이라 할 때, 수업이란 것이 교사, 학습내용, 학습자의 3 요소 간에 균형을 이루어 전개되어야 하고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수업은 수업내용, 학생 수준, 학습 여건, 시대적 상황,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수업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교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동료교사의 수업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으로 관찰하고 협의하는 동료간의 자율 장학의 기회를 늘여 나가고자 한다.

2. 수업 동영상을 활용한 동료장학활동

가. 수업 동영상 자료 찾아가기



북천초등학교 홈페이지



동영상 갤러리



동영상 클릭

나. 수업 동영상을 통한 자율장학 계획

연번	교사명	시 기	학년	교과	단원	연번	교사명	시 기	학년	교과	단원
1	권오철	3월 30일(화)-3교시 10:50~11:30(40분)	전담	과학 (5학년)	2. 용해와 용액	5	이주영	9월 17일(금)-2교시 10:00~10:40(40분)	5	국어	1. 마음 속의 울림
2	허현자	9월 16일(목)-1교시 09:10~09:50(40분)	1	슬생	2. 병원놀이	6	박이숙	9월 17일(금)-3교시 10:50~11:30(40분)	6	수학	4. 원과 원기둥
3	김성호	9월 16일(목)-2교시 10:00~10:40(40분)	2	국어	1. 느낌을 나누어요	7	권오철	9월 17일(금)-4교시 11:40~12:20(40분)	전담	과학 (5학년)	3. 지층을 찾아서
4	이상현	9월 16일(목)-3교시 10:50~11:30(40분)	3	국어	1. 알아보고 알려주고	8	박희숙	9월 17일(금)-1교시 09:10~09:50(40분)	유	게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3. 동료 장학활동의 절차

가. 수업분석의 절차

수업 지도안 작성 ⇒ 수업 계획 분석 ⇒ 수업 사전 협의록 작성 ⇒ 수업 실시 ⇒ 동영상 촬영 ⇒ 홈페이지 탑재 ⇒ 수업 분석 ⇒ 수업장학 협의록 작성 ⇒ 수업 협의회 및 일반화

나. 수업 관찰 후 협의

동영상 수업을 관찰한 전교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며 교사들은 서로 협동적이고 연구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찰결과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의 개선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서로 토의한다.



수업 협의회

4. 동영상 수업장학의 효과

가. 일반 수업의 공개는 수업 관찰을 위해 학급 학생들을 다른 동료교사에게 부탁하고 수업을 참관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동영상을 통한 수업 자율 장학은 가정에서 혹은 학생들 방과 후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수업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학급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교육과정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나. 동료 교사의 수업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 장학은 일반 수업과는 달리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일반화가 가능한 중요한 부분의 경우 언제든지 재생하여 확인 및 반복 관찰이 가능하므로 일반 수업 관찰보다 많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맞춤형 장학을 통한 좋은수업 기술 나누기



손 형 근
마산 감천초등학교 교장

1. 시작하며

교육청 주도하에 이루어지던 장학이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자율 장학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학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장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실정에 알맞은 장학방법을 선택 적용하되(선택적 장학), 전교원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중 상시 좋은수업 기술 나누기 중심의 맞춤형 장학을 실시하고 있다.

2. 맞춤형 장학의 실제

맞춤형 장학의 그 첫째는 동료장학이다. 좋은수업 기술 나누기를 위한 동료교사들 간에 협동적 노력을 하는 신뢰적 과정으로 팀 조직에 의한 수업공개, 자기수업 분석, 협의를 통한 수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는 임상장학이다. 이는 저경력 교사(교육경력 3년 이하) 또는 수업기술 향상의 필요성을 느끼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소수의 교사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교사와 장학자 간에 친밀한 1:1의 관계에서 수업계획 협의, 수업장면의 관찰, 자료수집·분석·논의과정을 거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장학 담당자는 교장(감)이다. 셋째는 컨설팅 장학이다. 이는 공개수업 전개 및 수업개선을 위한 주제 컨설팅으로 장학요원 요청, 협의 토론, 질의응답 및 지도조언을 제공하는 형태로써 연 3회 계획되어 있다.

- 과제 1. 학력향상 : 맞춤형 학습지도의 효율적 방안
- 과제 2. 수업개선 : 생각의 힘을 기르는 탐구·토론 수업 방안
- 과제 3. 덕성교육 : 효·제정신의 생활 실천 방안

넷째, 자기장학이다. 이는 전교사가 1주제 이상의 과제를 갖고 연구 추진하며, 학부모 요청 공개수업 시에 학부모로부터의 피드백 자료 분석을 통한 자기수업 개선 의지 갖기 등으로 교사 자신의 전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학부모 요청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는데, 학부모 요청 공개수업시의 자기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장학모형을 적용하였다.

학부모는 수업공개 날을 안내받아 공개수업 참가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 학부모는 수업 참관방법의 사전연수로 공개수업 참관, 참관록의 작성 및 담임과의 대화 후 참관록 제출, 40분 단위로 한 시간 정도의 학교(급)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공개수업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참관방법의 사전연수를 통해 수업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알게 되어 참관에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였다.

교사는 공개할 교과와 선정, 교재연구 및 수업모형 설정, 지도안 작성, 수업자료의 준비, 수업공개, 자기수업 평가분석 및 결과 발표, 논의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수업개선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학부모초청 공개수업은 참관 학부모 대상으로 수업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업공개 후 피드백 협의과정을 거쳐 자기수업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3. 마치며

정기 장학지도가 폐지되고, 학교별 담임 장학사 지정을 통한 교내 자율 장학의 활성화를 위한 상시 지원체제의 운영은 장학방법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수업의 개별화가 요구되듯 교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학활동, 교사 개개인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학의 개별화, 즉 맞춤형 장학을 통한 좋은 수업 기술 나누기는 교사들의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성 제고는 물론 신뢰받는 교사상 정립에 효과적일 것이다.

전/문/가/초/대/석



장 석 원
미즈유외과 원장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저는 왜 수술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나요?



1. 호르몬(내분비) 치료란 무엇인가?

유방암 유발 인자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발생 위험인자이기도 하지만 유방이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폐경 전과 후의 에스트로겐 생성 과정은 다릅니다. 따라서 호르몬 약도 폐경 전인 여성과 폐경 후의 여성이 다릅니다. 에스트로겐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폐경 전의 여성에서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며, 폐경 후의 여성에서는 지방, 근육, 뇌 등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아로마타제 효소에 의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어 생성 됩니다.

2. 호르몬 치료의 약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유방암에 대한 최초의 호르몬 치료는 현재와 같은 약물치료가 아니라 수술로 직접 양측 난소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986년에 영국의 한 외과 의사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60년대에는 난소뿐 아니라 호르몬과 관계되는 부신, 뇌하수체 절제술이나 방사선 조사요법을 통해 유방암에 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항에스트로겐 제제가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치료 범위가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목시펜이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표준화되었고 유방암 환자는 아니지만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유방암 예방 효과가 확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 제제들이 시판됩니다.

폐경 후 난소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부신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폐경 전 난소의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황체형성호르몬분비호르몬 유사물질을 사용하거나, 혹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감소시켜 에스트로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수용체 제거제 등 다양한 작용 기전을 갖는 여러 약제들이 내분비 치료에 주된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호르몬 치료의 시기와 기간은?

내분비 치료는 유방암 세포가 에스트로겐에 대한 수용체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간 투여해야 합니다. 주로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항암제 치료가 끝난 후에 호르몬제를 투여 합니다.

내분비 치료가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존재 여부에 의존되고, 장기복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한정된 유방암 환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치료법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때 동반하는 탈모, 구토 및 설사, 백혈구 감소증 등의 심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불편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고, 특히 고령의 환자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도 사용될 수 있어 유방암의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법으로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방암 내분비 치료의 표준 약제로 사용되고 있는 타목시펜의 치료 효과는 유방암의 재발을 억제하거나 유방암 환자의 생존을 연장하는 측면에서 항암화학요법의 효과와 거의 같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효과는 타목시펜을 5년간 사용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이며 이보다 짧게 사용하면 타목시펜의 치료 효과는 줄어들고, 이보다 길게 사용해도 치료 효과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타목시펜 표준사용 기간은 5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롭게 개발된 약제의 치료 효과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수 년 후에는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환자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호르몬 치료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대표적인 호르몬 치료 약제인 타목시펜의 부작용은 드물게 약간의 오심, 체중 증가, 얼굴 화끈거림, 얼굴의 잔 털, 냉증, 가려움, 정맥 혈전증, 백내장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무서운 것은 자궁 내막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도는 극히 낮아서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나 투약기간 동안 1년에 한번씩 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권합니다. 이 약 자체가 양면성으로 약한 에스트로겐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동안 골다공증의 예방, 심근경색이나 동맥 경화 및 고지혈증의 예방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타목시펜에 비해 얼굴 화끈거림, 질 출혈, 질 분비, 혈전 및 색전증, 자궁 내막암의 부작용은 적은 반면 관절통, 근육통, 골다공증, 골절 등 근골격계 부작용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제의 선택과 부작용의 대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포츠로 함께하는 즐거운 체육수업



이 상 군

진해 웅동초등학교 교사(수업명사)

최근 교육과정의 변화로 학교 체육수업은 ‘생각하는 체육수업’, ‘학습자 중심의 체육수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의 체육수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학생들이 좋아하고 흥미 있어 하는 축구, 피구, 발야구 등 몇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육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수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뉴스포츠를 활용한 게임 활동

뉴스포츠는 축구나 야구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규칙이 통일된 스포츠와는 달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참가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며, 활동대상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잘 알려진 종목으로는 티볼, 디스크골프, 풋살, 게이트볼 등이 있다.

뉴스포츠를 활용한 체육수업을 통해, 보편화된 경기를 간소화한 형태로 변형하여 지도함으로써 기존 경기에서 사용되는 핵심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학생이나 기능이 미숙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협동성과 게임성이 강해 모든 학생들을 재미있게 체육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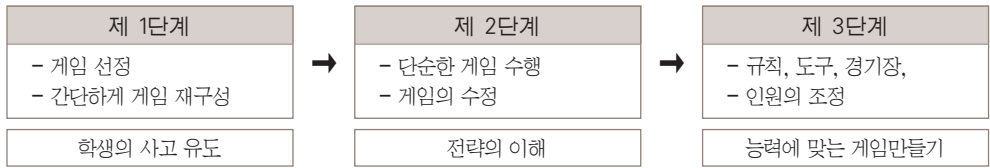
체육시간에 쉽게 적용 가능한 뉴스포츠 종목은 다음과 같다.

학년	활동	적용 가능한 뉴스포츠
3학년	피하기 게임	도지볼(스폰지 피구공)
	과녁맞추기	디스크골프, 볼로볼
4학년	공피하기	도지볼
	네트형게임	소프트테니스, 패드민턴, 슈퍼킥
5학년	축구형게임	미니축구
	농구형게임	플라잉디스크(변형)
	하키형게임	플로어볼
6학년	네트형게임	패드민턴, 소프트발리볼, 인디아카
	야구형게임	티볼

2. 이해중심 게임 수업모형 적용

뉴스포츠를 활용한 게임활동을 체육시간에 적용하기 위해 이해중심 게임 수업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게임을 하기 위한 부분적인 기능의 학습보다는 게임을 실제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업모형으로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수업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사는 어느 정도의 기능 수준만 가지고 있으면 행할 수 있는 게임을 선정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경기방법과 규칙을 변형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



- ① 게임 선택 : 게임유형에 따라 가르칠 게임을 선택하고, 학생 수준에 맞게 정식 게임을 변형하거나 간단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게임의 방법과 규칙을 안내한다.
- ② 게임 수행 : 변형되거나 단순화된 게임을 실제 수행하게 한다. 게임은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는 게임에서 복잡한 전략을 사용하는 게임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기능이 떨어지는 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
- ③ 게임 만들기 : 학생들이 모둠별 논의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규칙, 도구, 경기장, 인원수 등을 조정하여 새로운 게임을 만든다.

뉴스포츠를 활용한 게임 활동을 통해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학생과 기능이 미숙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게임 활동 중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할 부여와 모둠별 논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안전한 체육수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첫 시간, 첫 수업



신 동 한

밀양중학교 교사(수석교사)

입학 후 첫 기술 시간, 아직 초등학생의 티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학생들은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에 탐색과 행동의 사이에서 긴장하고 있는 듯 했다. ‘선생님은 무서우실까?’ 아니면 ‘재밌을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다른 선생님들처럼 선생님 소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첫 시간을 마칠까?’ 등 많은 생각의 모습들이 순간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이 첫 시간은 앞으로의 10시간, 혹은 20시간의 수업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시간이다. 첫 시간은 학생들에게 교과에 대한 인식, 교사를 보는 이미지 및 선입견, 교과 학습의 강도, 학생 자신의 학습 행동 결정 등 많은 부분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첫 시간은 어떤 수업시간 보다 잘 준비되고 디자인 되어야 한다.

1. 돌아보면

돌아보면 학년 초의 첫 시간을 의미 있게 준비했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교사의 이름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학교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등 일반적인 이야기 10분 쯤 하다가 첫 단원 수업 진도를 시작으로 한 학년 동안 수업을 진행해 갔던 모습의 기억들만 연상되기 때문이다.

어느 해이었던가 중3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질문 내용은 기술교과에 있어서 ‘기술’이 뭐냐는 질문 이었다. 학생들의 대답은 ‘기계를 만들거나 돌리는 것’, ‘제품을 잘 만들어 내는 것’, ‘기계를 잘 다루고 잘 만들어 내는 것’ 등의 대답을 했다. 순간 얼굴이 뜨뜻해졌다. 그동안 기술교육학을 전공했고 기술 교과를 20년 이상 가르쳐 왔는데 정작 학생들은 ‘기술’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오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2. 기초에 충실하자

교육과정에 있어서 기술 교과의 ‘기술(Technology)’은 기술학이라는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과이다. 즉, ‘기술(Technology)’은 ‘기능(Skill)’ 과는 다르다. ‘기술’ 속에는 인간의 삶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능’은 생산의 수단과 방법만 포함하게 된다. ‘기술’은 순기능적인 인간의 삶을 위해 기능을 활용하지만 ‘기능’은 생산 수단과 방법을 위해

인간의 삶을 포함시킬 수가 없다. 그럼에도 ‘기술’을 ‘기능’으로 착각하거나 기능만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기술 교사는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학적 분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용학적으로 분류된 영역들은 하위 단계의 단원과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해야만 한다. 그런 후에 ‘기술의 뜻’을 학생 발달 단계에 맞도록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학년의 첫 시간은 교과와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업시간보다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시간이 학년 첫 수업시간인 것이다. 교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업을 시작한다면 학생들은 교과서 속의 글자만 읽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단 이 문제는 기술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기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길 권유한다. 과학 교사는 ‘과학이 무엇이며 과학의 기본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국어 교사는 ‘국어는 무엇이며 국어의 기본 영역은 무엇인가?’를 교사 자신과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라.

3. 첫 시간을 철저히 준비하자.

수석교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컴퓨터의 바탕화면부터 바꾸었다. 수업을 생명처럼 여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바탕화면을 만들었고 그에 부응하기 위한 첫 시간을 준비했다. 첫 수업시간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했고 교과와 관련된 구호도 만들었다.



〈컴퓨터 바탕 화면〉

구호에 대한 설명 대본도 쓰고, 교사를 소개하기 위한 이미지 자료, 교과 소개를 위한 눈높이 전문자료, 수업 진행 방법 및 평가에 대한 내용 등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했다. 그리고 구호부터 외치는 첫 수업을 시작했다.

“기술의 역사는(교사 선창), 발명의 역사(학생 후창), / 발명의 역사는(교사 선창), 나의 역사(학생 후창)” 이렇게 2010학년도 첫 시간 첫 수업은 시작되었다.

4. 이런 교사가 되자

‘나는 이런 교사가 되겠다.’라는 다짐은 어떤 수업 이론보다, 어떤 수업 기술보다 중요하다. 그 다짐 속에는 교사로서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열정이 불타 오른다면 교육현장은 큰 변화가 시작 될 것이며, 어떤 당근과 채찍보다 효과적인 교실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교사들이 열정을 갖게 된다면 매일 교육 위기라고 떠들어대는 그 소음마저 잠재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교사로서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사로서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첫 시간부터 시작하고, 나부터 시작하고, 그 열정의 불씨를 동료 교사에게 나눠주고 전파하는 교사가 되자. 그리하여 평범한 교사에서 뛰어난 교사로, 뛰어난 교사에서 훌륭한 교사로, 훌륭한 교사에서 위대한 교사로 거듭나는 교사가 되자. 위대한 교사가 되어야만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병 만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개발담당 장학사

초·중등 교원 인사제도 개선

■ 변경 전 내용

- 초빙 교사제
 - 초빙교장제 실시학교(교사 배정 정원의 20% 이내)
 - 교육감 지정학교(교사 배정 정원의 10% 이내)
 - 교육공무원 승진시 경력 평정기간 25년 '08년부터 매해 1년씩 단축)

■ 변경 내용

- 교장 임용체제 다양화·유연화를 위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실시
 - 기 실시학교 현황(초13개교, 중7개교, 고4개교 계 24개교)
 - 내부형, 개방형 공모 실시 : 자율학교 중 결원발생학교
 - 초빙교장형 공모 실시 : 일반학교 중 결원발생학교
 - 제6차(2010.3.1), 제7차(2010.9.1)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운영
- 교장 임용 심사 강화
 - 교장 신규임용 심사 강화
 -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교과부예규 제11호)에 의거하여 중임심사 강화
- 교육공무원 승진 제도 개선
 - 2010.3.1차 가산점 평정규정 개정 고시
 - 청소년단체지도교원 가산점 부여
 - 경로·효행상 수상 교원에게 경로·효행교육공무원 가산점 부여
 - 학력향상우수학교 유공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 경력평정기간 축소 : 2010. 12. 31. 평정시(22년) : 기본경력 17년, 초과경력 5년(70점)
- 초빙교사 확대 운영
 - 전학교 실시(도서·벽지학교 제외)
 - 해당학교 교사 정원의 20%이내(자율학교 50%이내)
 - 초빙기간 : 3년, 재초빙 가능
 - 초빙대상 : 동일 지역교육청내 교사

■ 관련 법규 및 시행일

- 관 련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3항
 -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
- 시행일 : 2010. 3. 1.

■ 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268-1122 중등교육과 ☎ 268-1182

감사활동 변화를 통한 감사역량 강화

■ 변경 전 내용

- 직무관련 공직기강 확립 필요
- 취약분야 감사활동을 통한 부패방지 필요
- 감사 결과 처분 기준 상향 조정 요구 증대

■ 변경 내용

- 감사담당관 담당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조정
 - 현재 3개 담당의 업무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재 조정
 - 정기 종합감사 일수 및 인원 축소로 실제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집중 감사로 효과 증대
- 감사 결과 처분 기준 상향 조정
 - 현행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2008. 3.13. 개정·시행)」 371개 유형 중에서 처분기준이 낮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 목적의 사용 등 117개 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 상향 조정하여 2010. 1. 1.부터 시행
- 「감사 결과 처분 누진제」 도입
 - 개인별(공립 각급 기관), 학교별(사립학교)로 감사 지적 사항을 관리하여, 동일한 지적사항 발생 시 가중 처분하는 「감사 결과 처분 누진제」를 도입
 - 동일인이 기관을 달리 해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의한 동일 사안으로 5년 이내 3회 이상 지적될 경우 원 처분 보다 차 상위 단계로 가중 처분
- 공금 횡령·유용 등 직무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 처리
 - 공금 횡령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고발 조치
 -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 「원 아웃(one-out)제」 도입
 -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먼저 요구하여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단 1회 적발만으로 중징계 요구

■ 관련 법규 및 시행일

- 관 련 :
 - 2010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담당관-5661, 2009.12.28. 교육감 내부결재)
 - 2010년도 자체감사 계획 알림(감사담당관-5699, 2009.12.29.)
- 시행일 : 2010.1.1.

■ 문의 : 감사담당관 ☎ 268-1042

교 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글 쓰는 순서

- ① 학년말 업무
- ② 학년 초 업무 계획
- ③ 업무결재 관련
- ✓ ④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방안
- ⑤ 출결 및 전출입
- ⑥ 수행평가 및 성적처리
- ⑦ 학적관리(유예, 면제, 정원외)
- ⑧ 각종 누가 기록 관리 1
- ⑨ 각종 누가 기록 관리 2
- ⑩ 기록부 정정 대장
- ⑪ 차세대 교무업무시스템

활용

학부모 서비스 확대

NEIS

이번 5월호에서는 교무업무시스템의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 바로 알기’라는 기치의 학부모 서비스는 2006년 9월, 전국적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안방에서 자녀에 대한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학사 일정 등의 학교생활 정보나 학교에서 보내는 각종 가정통신문 등 그 밖의 18개 항목에 대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요시 온라인상에서 선생님과 직접 상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는 홍보 부족, 학부모의 관심 부족, 제공되는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가정과 학교가 자녀 교육을 함께 이끌어 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호에서는 학부모

서비스 시스템의 사용법 보다는 학부모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학부모 총회

▶ **홍보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 - 거의 모든 학교들은 학기초가 되면 학부모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학교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답임과 대면의 시간도 가지는 학부모 총회 행사를 개최합니다. 학부모 총회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은 학교의 3대 행사 중의 하나로서 학부모를 상대로 연수하기가 가장 적합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학부모 서비스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한다면 학부모 서비스 가입률확대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답임과 대화 시간** - 전체 총회에서 학부모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면, 답임과의 대화 시간에 실제적으로 각 학급의 학부모님들의 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2. 가정통신문

▶ **시행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 제공 방법** - 서비스 시행 안내, 전용 공인인증신청서를 첨부한 무료 전용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전용 공인인증신청서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서비스 확대 개편 시행안내, 홍보 리플렛을 첨부한 학부모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러한 가정통신문을 통한 안내는 가장 손쉽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 서비스의 가정통신문을 사용하면 학부모의 회신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추후 기존 종이 문서화된 가정통신문의 단점을 많은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문자메시지

▶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 - 가입을 권유하고 안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현재 학부모 서비스 메뉴에서도 캐쉬 충전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서비스 가입 전의 학부모나 가입한 학부모들에게 간단한 동의를 얻어 알림장, 성적, 수행평가, 출결 등의 결과를 바로바로 학부모에게 전달합니다.

▶ **문자메시지 승인 관리** - 학부모 서비스 메뉴에서 기존에 가입한 학부모들에게는 간단한 인증문자를 보내서 승인을 얻고, 가입하지 않은 학부모는 학기초에 조사한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답임이 직접 입력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메뉴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일괄 전송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4. 모니터링제 운영

▶ **학부모 모니터 요원 선발 운영** - 학부모 모니터 요원은 전화, 방문, 홈페이지 설문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학부모 서비스 문제점과 만족도 등을 도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여 학부모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교육적 활용 방안에 반영합니다.

5. 학교홈페이지

▶ **홍보 배너 설치** - 학교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여 방문하는 학부모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 서비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6. 기 타

▶ **학부모 연수 운영** - 학부모를 상대로 학부모 서비스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인증서 발급의 어려움들과 더불어 학부모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한 절차의 까다로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 평생교육 교실이나 담임과 상담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부모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학교에서** - 학부모들의 학부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의 또 하나는 한 달이 넘도록 서비스 정보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안에 여러 개의 게시판이 있지만 게시물은 거의 늘어나지 않아 죽은 홈페이지라는 인식입니다. 또한 그나마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학사일정과 더불어 학교 교육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게시판을 활성화하여 정말 학부모, 학교, 교사를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도록 많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들을 학교 실정에 맞추어 운영한다면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여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연계하여 주는 ‘소통’의 가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 타이베이한국학교 소개



정 종 훈
타이베이한국학교 교장

1. 대만의 개관



제주에서 남쪽으로 1시간 남짓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만나는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긴 섬나라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대만, 타이완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중화민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체 인구가 약 2,300만 명이며, 남북길이 약 395km, 동서길이 약 145km로 전체 면적은 경상남북도의 면적을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기후는 북쪽지역은 아열대, 남쪽지역은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겨울철(10월~3월) 월평균 기온은 약 15℃이며, 여름철(6월~9월)에는 약 30℃입니다. 민족은 98%가 중국의 한족이며 나머지는 본토의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만다린어(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타이완어, 객가어, 원주민 방언 등을 사용합니다. 과거 대만과 한국은 상호협력의 우호적인 관계였으나, 중국과의 수교로 인하여 1992년 8월 불가피하게 대만과 단교가 되고, 양국 간의 깊은 골이 생겼지만, 1998년 대만과 한국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한 이후로 민간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위치한 타이베이한국학교는 1961년 대한민국 문교부령 제 5061호로 학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62년 개교한 이래 유치부 2개 학급과 초등부 6개 학급 7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힘을 합하여 세계 속에서 살아갈 우리 어린이들이 더 원대한 꿈을 품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유·초등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II. 한국 교육과정과 타이완의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교육과정 운영

○ 주당 40시간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의 충실화와 주당 15시간의 외국어 시간 운영

초등부(1학년~6학년)의 경우 한국의 초등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당 25시간의 한국교육과정과 15시간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일부 내용들을 현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재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질 높은 외국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Level Test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5단계로 편성, 매주 영어 10시간, 중국어 5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학기 외국어(영어·중국어) 낱말 퀴즈대회, 외국어 발표대회(웅변, 연극, 노래 등)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만국립중국어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중국어시험에도 응시하여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다양한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운영

-사물놀이, 태권도, 합창시간, 모둠활동-

민족의 긍지를 높이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익히게 하기 위하여 매주 1시간씩 사물놀이와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고, 합창 시간을 통하여 밝고 희망찬 우리의 동요를 익히고,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 학년(1~6학년)을 대상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매주 1시간씩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전개하기 때문에 형제와 같은 친밀감을 갖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물놀이나 태권도는 교민사회 및 대만 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문화를 드높이는 민간 외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자매 학교와의 교류활동

한·중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인근에 있는 현지 대만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수차례에 걸쳐 상호 학교를 방문하여 양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대만 어린이들에게 제기 만들어서 차기 놀이, 우리나라 동요,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대만 학교에서는 대만 전통 놀이와 중국어로 서로 이야기 나누기 시간들을 통하여 양국 문화에 대해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예발표회나 운동회에 현지 자매 학교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펼치는 등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II. 유치부-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 유치부 인턴 교사 지원 및 초등부의 글로벌 멘토링 활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

매년 7월에 지원되는 인턴 보조교사 제도로 부산 대동대학에서 5~6명의 인턴교사들이 지원되어 한글수업 및 방학 중 과학 캠프 등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향후 초등

부에 입학했을 때,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경인교육대학교의 학생들이 매년 1회의 글로벌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본교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V. 중장기 발전 계획과 당면과제

과거 1992년 대만과 한국과의 단교 후, 한국교민의 대만 진출이 감소함에 따라 본교의 학생 수 또한 점차 줄어들었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대만과 한국과의 민간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교민 수가 많아져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타이베이한국학교도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려는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의 숙원 사업이었던 교사(校舍) 증·개축을 교민사회, 학교, 학부모들의 노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올해(2010년)에 실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교사(校舍) 증·개축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 새롭게 태어남과 동시에 교민사회에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학교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당면한 과제는 향후 유·초등부 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과정도 설치하여 다른 국제학교와 경쟁력을 키우고, 교민사회에도 더 많은 교육 혜택을 지원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학교조감도〉

맞춤형 교육으로 향하는 학부모 집중상담주간 운영



어 중 희

밀양초등학교 교장

1. '우리 아이 바르게 이해하자' 로부터 출발하다

해마다 3월 초가 되면 선생님과 아이들은 서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다. 학부모 또한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학교마다 3월에 교육과정 설명회를 한 뒤, 담임과 만남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10여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자녀에 대한 솔직한 상담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담임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해 주고 싶지만 다른 학부모 앞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큰 문제가 없는 한 학교에 와서 담임과 상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모님은 근무 중에 학교를 방문한다는 것은 업무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부모 집중상담주간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와 담임이 가정과 학교 생활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면서 내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학부모와 교사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2. 내실있는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다

상담주간은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다.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해 감축기를 반영하여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맞벌이 가정과 일과 시간 중 상담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6일과 8일, 2일간 야간 상담시간을 준비하여 운영하였다. 세부추진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순	추진업무	기간	추진내용
1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2009. 12	2010학교교육과정수립을 위한 설문지
2	학교교육과정편성 위원회에서 실시여부 협의	2009. 12	학교교육과정편성 위원회 운영 계획
3	2010.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2010. 2	2010.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4	사전 연수	3월 8일	전교직원 대상 상담내용 및 상담기법 연수

5	학부모 대상 홍보	3월 20일	교육과정 설명회 때 홍보
		3월 4주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사전 홍보
6	준비된 상담이 되기 위한 담임교사 준비	3~4월	관찰기록을 통한 학생 관찰
		3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통한 학력 수준과악
		3월	아동기초조사서를 통한 가정환경과악
7	가정통신문 발송 및 신청서 접수	3월 23일	1차 : 집중상담일 안내 및 상담 날짜 신청
		3월 31일	2차 : 상담 배정일 통보 및 학부모 유의사항 안내
8	상담 일시 결정 통보	3월 31일~	반별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
9	상담활동 실시	4월5일~4월9일	총 598명 상담(야간상담 : 144명) 참여
10	반성협의회	4월12일~14일	학년별 협의회→전체 협의회(학년부장 중심) 2011년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예정

3. 학부모 · 교사 모두가 만족한 상담활동이 되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주간과 야간 집중상담주간 동안 598명의 학부모가 상담에 참여하였다. 그 중 144명의 학부모가 야간시간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야간상담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동참한 분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상담을 마친 학부모 박화숙(2학년 최소현 모)님은 ‘선생님을 뵈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용기가 안 나서 지금까지 못 왔는데 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어 고맙다.’고 하였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인 학부모 박진호(6학년 박예송 부)님은 ‘야간상담 시간을 운영해 주어 감사하고 학교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만족감을 표하였다.

본교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분 한 분 개별 상담을 하면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게 되어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야간 상담 등으로 힘은 들었지만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일이라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4. 공교육 신뢰 회복과 맞춤형 교육실시가 기대되다

학부모 상담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모두가 상담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상담활동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을 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안도감을 느끼고 담임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희망사항을 내놓기도 하였다.

▣ 2011년에도 야간 상담시간 운영 희망

▣ 연 2회 상담주간 운영 희망

위와 같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주 · 야간 집중상담주간 운영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와 향후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제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봉 효
창원 명곡초등학교 교사

알알이 맺히는 명곡 4가지 열매

- 명곡 4대 교육활동 전개를 위한 학생 수첩 제작·활용과 학교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로 된 교육과정 제작 -

01



02



03



- 01 세바퀴 교육목표
- 02 학생 수첩 표지
- 03 독서노트 표지

▣ 2010년의 모든 교육과정은 학력 향상이다

창원 명곡초등학교(교장 전용익)는 2010년 학교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가정-학교-지역공동체가 하나되는 '세바퀴 교육목표'를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교의 세바퀴 교육목표는 학생들의 미래 지향점으로 꿈, 희망, 도전을 갖추게 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되어 지·덕·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세바퀴가 사랑, 능력, 헌신을 가지고 함께 굴러 심성과 창의성을 갖춘 학생으로 길러내고자 한다.

▣ 알알이 맺히는 명곡 4가지 열매

명곡 세바퀴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독서교육', '영어교육', '한자교육', '체육교육'의 4대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활동	내 용
독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활동 시간을 활용한 책 읽기(08:30~08:45) • 1학생 연간 100권 이상 읽기 • 독후 활동을 위한 독서 노트 제작·배부
영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영어 단어 및 문장 익히기 • 1일 1~2문장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년 : 영어 단어 및 간단한 문장 익히기 - 3~6학년 : 교과서를 활용한 학년별 영어문장 익히기
한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 한자자격 급수용(8급~6급) 한자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학년 : 8급~6급용 한자 300자 익히기 - 4~6학년 : 8급~5급용 한자 500자 익히기 • 매일 2~4한자에 대하여 음훈과 필순 익히기
체육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저, 중, 고) 건강증진기 급수 기준표 제시 - 학교 자체에서 지정한 6개 급수 활용 • 달인 및 금달 도달 학생 복도 게시판 사진 게재

▣ 포켓형 학생 수첩과 독서 노트 제작 및 보급

명곡 4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이 휴대하기 편리한 크기로 제작된 포켓용 학생 수첩을 보급하였다. 이 학생 수첩에는 명곡 4대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명곡

효행 10수를 지정하여 수집에 수록하였다. 명곡 효행 10수로 정철 ‘훈민가’, 양산언 ‘태산이 높다하되’, 김상용 ‘아버이 자식 아이’, 이숙량 ‘부모님 계신 제는’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독서교육의 독후활동을 위하여 독서노트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 독서노트에는 독서량을 표시하는 공간과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 공모를 통한 학교 캐릭터 개발 및 활용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학교 홍보를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학교 캐릭터를 발굴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입상작품들을 통하여 캐릭터의 상징을 교화(장미)와 교목(느티나무)으로 정하고,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학부모들에게 인지시키기 쉬운 캐릭터를 제작하여 학교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캐릭터의 이름은 교화와 교목의 꽃말을 활용하여 사랑이(교화 : 장미)와 개척이(교목 : 느티나무)로 정하였다. 사랑이는 남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없이 베풀며 순수하고 깨끗한 명곡 어린이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개척이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스스로 미래사회에서의 큰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자신의 세상을 개척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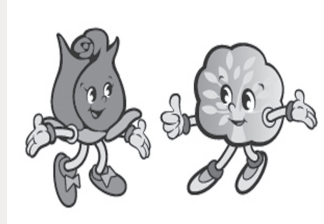
▣ 학교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형식의 학교교육과정 제작

‘교육공동체가 알아야 할 올망졸망 우리학교 이야기’는 2010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내용을 추출하여 만화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학교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활동 참여에 다소 소극적인 아버지들에게 자녀의 학교 교육에 관심을 부여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등교일, 학년 교육과정 내용, 주당 수업 시간, 학생 평가 및 학교 중점교육활동,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명곡초등학교는 학생 수집과 독서 노트를 통한 명곡 4대 교육활동과 캐릭터 개발, 만화로 된 학부모 교육과정 제작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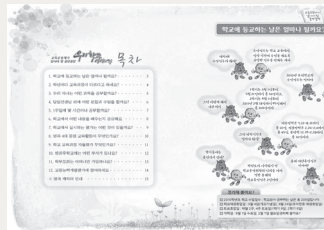
04



05



06



04 사랑이와 개척이
05, 06 학교교육과정 제작

여섯 색깔이 빛나는 경남은혜학교



김영현
경남은혜학교 교장

01



색깔하네!
몸 튼튼 마음 튼튼
워킹 앤 런(Walking & Run)

02



색깔 돌!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위한
요가를 이용한 공간놀이 교육활동

03



색깔 셋!
신나는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한
음악과 함께하는 교육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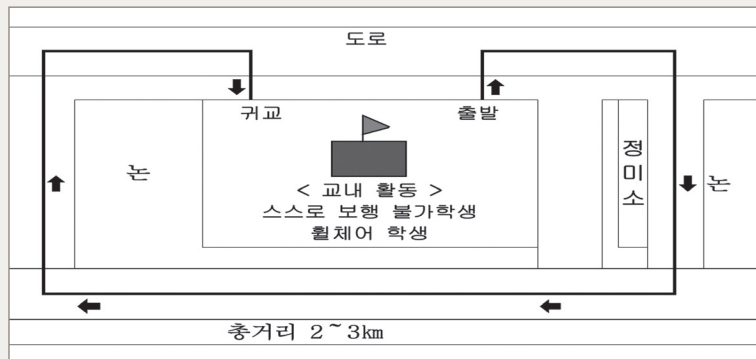
경남은혜학교(교장 김영현)는 전형적인 농촌형 특수학교이다. 김해평야의 한가운데 있어 시골 정취가 물씬 풍기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체험중심의 친환경 교육’ 실현에 매우 적합하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1교시 교실 수업이 없는 일과 운영, 토요일 책가방 없는 날 운영 등으로 장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학생과 교직원들의 체력 단련 및 향상을 위한 워킹 앤 런(Walking & Run) 교육활동, 요가를 이용한 공간 놀이 교육활동, 음악과 함께하는 교육활동, 자연을 사랑하는 토요 환경체험 교육활동 등 4대 특색 교육활동과 학생 건강 교육 강화를 위한 치료센터와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전통 예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심어 주고 있다.

색깔 하나! 몸 튼튼 마음 튼튼 「워킹 앤 런(Walking & Run)교육활동」

본교는 1교시 수업이 없다. 말 그대로 걷고 뛰는 프로그램인 ‘워킹 앤 런’을 매일 1교시에 운동장으로 나가 먼저 체조로 몸을 푼 다음 30~40분 동안 학교 주변을 걷고 뛰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작할 당시에는 10m도 채 걷지 못하던 학생들이 한 두 달이 지나자 학교 주변 가까운 거리 정도는 쉬지 않고 걸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듯 1교시 ‘워킹 앤 런’ 교육활동은 본교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으며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01 색깔 하나
- 02 색깔 둘
- 03 색깔 셋

색깔 둘!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위한 「요가를 이용한 중간놀이 교육활동」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활동으로 매일 2교시 수업 후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하는 중간놀이 프로그램이다. 각 학급에서 학생들은 TV 동영상 화면을 통해 동작을 따라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동작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색깔 셋! 신나는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한 「음악과 함께하는 교육활동」

등·하교시 30분간 경쾌한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교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음악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데 있으며, 동요나 가요 부르기를 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는 교육활동이다. 특히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익히고 있는 사물놀이와 난타 공연은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 행사 초청 발표를 통해 장애 학생의 문화 예술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색깔 넷! 책가방 없는 토요일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 체험 교육활동」

학교 오는 토요일은 책가방 없이 즐겁게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주변의 자연 속에서 각종 씨앗심기, 식물 가꾸기, 농작물 수확활동, 요리 활동, 자연보호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심을 배우게 되고, 여러 감각을 활용하여 자연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등 다양한 학습의 효과를 가진다.

색깔 다섯!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학생 맞춤형 「치료센터 및 구강보건실 운영」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에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하여 치료센터를 설치하였다. 3명의 언어치료사와 2명의 물리 치료사를 채용하여 유·초 1~4학년과 중1학생을 대상으로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지역 내의 이승훈 외과의원 원장님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학교 치료지원센터 물리치료 대상학생 12명의 무료처방서비스와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와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네오미 치과 의원의 안진공 원장은 매주 화요일 본교 구강 보건실에서 우리 학생들의 구강 치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어 충치 없는 학교가 되었다.

색깔 여섯!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전통예절 교육」 실시

전통적인 문화 양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덕성교육을 강화하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익히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사택을 개조하여 '예절 생활 체험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2010.4.5 개관)

특히 장애 학생들의 예절 교육은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이다.

유, 초, 중, 고등부 학생들은 각반별 월 1회 예절 생활 체험관에서 소리 내지 않고 걷기, 방석을 놓고 자리에 앉는 법, 선생님께 인사하기,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등 학교와 가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 및 다례를 통해 조상의 슬기와 정신문화를 조금씩 익히고 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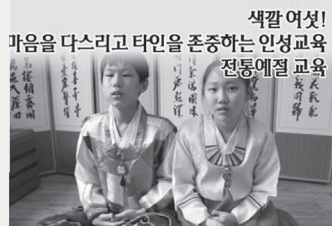


05

색깔 다섯!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학생 맞춤형
치료센터 운영



06



04 색깔 넷
05 색깔 다섯
06 색깔 여섯

“학교도서관이 마을 사랑방 되었어요.”



강 미 화
하동 옥중중학교 교사



01

1. 시작하며

하동군 옥중면에 위치한 옥중중학교(교장 이진숙)는 교직원이 18명, 전교 학생이 81명, 3학급에 특수 학급이 갖추어져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이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 처럼 규모는 작지만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실속 있는 학교라는 것,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이유는 바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02

2.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사업’을 준비하면서

옥중중학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에 선정되어 ‘옥산골 문화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을 2007년 9월부터 운영하여 올해로 벌써 4년째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14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사업’에도 선정되어 3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요가교실, 영화교실, 문화교실)을 신설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7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3

가.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사업’ 관련 신설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 명	대상 및 인원(명)	프로그램운영시간	장소	강사	비고
1	요가 교실 강좌	학부모, 지역민 15명	매주 월요일 18:00~20:00	예절실	본교 교사 (신정희)	
2	영화 교실 강좌 (영화 상영)	학부모, 지역민 30명	매주 수요일 18:00~20:00	영어 전용실	외부 강사 (이재석)	
3	문화 교실 강좌 (천연화장품, 비누)	학부모, 지역민 20명	매주 금요일 18:00~20:00	가사실	외부 강사 (김윤미)	

나. '옥산골 문화체험 교실' 운영 평생 교육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 명	대상 및 인원(명)	프로그램운영시간	장소
1	부모와 함께하는 공부방	학부모, 학생(35명)	매일 18:00~21:00	문헌정보실
2	부모와 함께하는 생활영어 교실	학부모, 학생, 지역민(20명)	매주 월요일16:25~17:10	영어전용실
3	컴퓨터활용 자격증반	학생, 학부모, 지역민(22명)	매주 화, 목19:00~21:00(2시간)	컴퓨터정보실
4	찾아가는 컴퓨터도우미	지역민(20명)	매월 1회	각 마을
5	happy family 캠프	학부모, 학생(60명)	여름방학	옥종중학교
6	학교생활 안전 도우미반	지역주민(16명)	매주 화, 목19:00~21:00	옥종면 일원
7	추억의 학교가는 날	할머니, 학생(40명)	4월, 9월	영어전용실
8	건강에어로빅반	학부모, 학생(30명)	매주 화, 목19:00~20:00(1시간)	다목적강당
9	천연염색 (동아리운영)	학생, 학부모, 지역민(15명)	매월 첫주 수요일 15:00~19:00(4시간)	북천면 송풍공방
10	테니스반 (동아리운영)	지역민(28명)	매주 화, 목 19:00~21:00	테니스장
11	풍물놀이반 (동아리운영)	지역민(24명)	매주 화, 목 20:00~22:00	다목적강당
12	국선도 (동아리운영)	지역민(28명)	매주 수(1시간)20:30~21:50	청룡리 노인정
13	한국화 기초반 (동아리운영)	학생, 학부모(15명)	매월 첫주 토요일 13:00~17:00(4시간)	미술실
14	문해반 (불무리 동아리운영)	할머니(8명)	매월 첫주 화요일 19:00~21:00(2시간)	불무리 마을회관

04



05



06



3. 인기 강좌 3인방 '요가교실, 영화교실, 문화교실'

2010학년도에 신설된 평생교육 강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의는 실로 뜨겁다.

가. 요가 교실 강좌

평생교육강좌를 열기 전부터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단연 호응을 얻은 강좌이다. 요가 전문 강사 자격증을 지닌 본교 교사가 수업을 이끌다보니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되어,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 영화 교실 강좌

영화 교실 강좌는 문화관광부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소개받은, 영화를 직접 제작, 감독하는 활동 경력을 가진 강사가 이끌고 있다.

이 강좌는 단순히 재미삼아 보는 영화감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문 강사의 해석을 곁들여 감독, 배우, 작가의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해보는 감상 방법을 통해 영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분석을 통해 감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골이라 영화관이 멀어 제대로 된 감상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평생교육 강좌이다.

다. 문화 교실(천연 화장품, 비누) 강좌

요즘 학부모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강좌이다. 웰빙에 맞춰 피부에 좋은 천연 화장품과 비누에서부터 생활에 필요한 주방세제와 세탁세제까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실속 있는 내용으로 준비한 강좌이다.

우리 몸에 좋은 자연친화적인 화장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점에서 그 매력이크다.

4. 그 밖의 성과들

학부모 도서관 도우미 활동으로 학교도서관을 밤늦게까지 개방하다보니, 학원 대신 방과후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교육비 절감 차원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공부 습관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게 되어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5. 맺으며

“요즈음, 우리 동네 사랑방은 마을 회관이 아니고 학교도서관이네.”라고 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말씀들 속에서 옥종중학교 평생교육 강좌가 제 구실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공통되는 화제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친화 단결에 도움을 주어 그야말로 생활의 활력소,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옥종중학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방과후 도서관 개방을 필두로 해 다양한 평생 교육 강좌를 개발·운영하고 있어, 명실공히 지역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 평생 교육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01



02



03





내 삶의 에너지



김재식

경상남도 남해교육청 장학사

1. 작은 관심, 큰 꿈 시작하다

올해로 10년째 계속되는 상주중학교의 일본 현장 체험학습에 바쁜 일손을 잠시 놓고 동행하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송하기 위해 직접 여객터미널로 나온 강창수 이사장의 말씀에 의하면 상주중학교의 일본 체험학습의 시작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정일 상주학원 이사장께서 살아생전에 사재를 털어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초청해 온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사후에는 본인(큰아들)과 강창현 이사(작은 아들)께서 힘을 합해 선친의 유지를 받들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형편이 다소 나아져 부담이 적다지만 IMF 위기나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재정 압박, 고환율 등으로 중도에 포기해야 할 만큼 커다란 시련도 있었다고 한다.(이 대목에서 잠시 선친 생각이 났는지 말꼬리를 내리더니 금방 안경너머로 촉촉해진 눈을 훔쳐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시작한 선친의 교육사업 육성과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한 본 프로그램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유지시켜야 한다는 두 분의 의지가 오늘 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강창수 이사장의 환송사가 뇌리를 스친다.

일본 체험학습은 까다로운 입국 절차에 처음부터 다소 불편하였으나 무사히 출국장을 나와 강창현 이사를 비롯한 회사 직원 몇몇의 따뜻한 영접을 시작으로 일본 체험활동이 시작되었다.

2. 일본문화 속의 우리 역사를 이해하다

첫날 오후, 고 강정일이사장의 묘소를 참배한 후 근처의 아카마 신궁에 들렀다.

이 궁은 원래 헤이안시대의 안토쿠왕을 모시는 곳이지만 조선시대 때 시모노세키를 찾은 조선통신사의 객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건너 공원에는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가 있는데 이를 통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류가 빈번했다는 역사적 발자

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카마 신궁 옆, 머지않은 곳에 유난히 화려한 황금색 지붕의 건물 정원에는 우리 지역에서 지워서는 안 될 인물인 이토히로부미 동상이 무츠무네미츠백작 동상과 나란히 세워져 있어 이곳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청과의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했던 역사적 건물임을 알게 한다. 우리 학생들은 이토히로부미가 한말 한국통감으로 우리 국정을 농단한 악인이며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몇몇 이는 동상의 머리를 쥐어박고 지나간다.

3. 한일 해저터널 설계를 꿈꾸다

남해대교와 닮은 칸몬교(關門橋)는 본 섬인 혼슈의 시모노세키와 기타큐슈의 모지(門司)항 사이에 있는 칸몬 해협(關門海峽)의 최협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하늘길인 칸몬교(關門橋)는 길이 1,068m, 폭 26m의 4차선으로 1968년에 착공하여 1973년에 개통되었고, 양쪽 지지대를 축으로 하여 수천기둥의 가는 철선으로 조합된 와이프에 의해 다리 상판이 지탱된다는 가이드의 설명과 다리의 이력이 적힌 안내판을 꼼꼼히 살펴 기록하면서 일본의 교량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바다길인 칸몬국도 터널은 칸몬교(關門橋) 아래 해저를 관통하는 3,461m에 달하는 긴 터널로 보행자 전용과 차량 전용으로 나누어 1958년에 개통된 해저터널이다. 40여 년 전에 건설된 터널이라 다소 불안한 마음은 있었으나 도보로 약15분 정도 걷는 동안 곳곳에서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지진이 많은 일본을 의식해서였는지 지진과 관련된 재해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이 많았고, 더러는 어디서 들었는지 한일 해저터널 공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몇몇의 학생들은 벌써 이 공사를 머릿속으로 설계하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4. 일본어 솜씨를 뽐내다

여행 마지막 날. 시모노세키 부시장과의 짧은 대담시간은 잠시 감동의 시간속에 빠지게 했다.

우리 학생들은 통역원이 도와줄 것이니 한국말로 하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일본어 솜씨를 자랑하듯이 자기소개는 물론 일본에 대한 사전 질문 내용을 유창하게 내뱉더니 답변하는 부시장의 말도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로운 표정이나 제스처어로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단번에 우리 학생들의 일본어 실력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평소 일본어 강좌(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에 틈틈이 익힌 실력을 오늘 유감없이 발휘하지 않았나 싶다.

해마다 우리의 방문 숫자가 줄어든다고 염려하시며 최근 시모노세키시에서도 교육문제도 학생들의 탈 어촌 현상이 심화되어 지자체에서 먼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재정 지원

은 물론 시민의 공감대 형성 노력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부시장의 말은 우리도 시모노세키시의 선형적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암시인 것 같다.

한편, 웅장한 규모의 시청사(市廳舍)에 비해 시장실은 아담하면서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거리나 주차장마다 소형차 일색의 자동차 행렬은 겸소한 일본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 것 같다.

5. 경험을 큰 걸음으로 바꾸자

일본의 아키요시도우 자연동굴, 아키요시다이(카르스트 고원), 사파리랜드, 일청강화 기념관, 아카마 신궁, 관문대교, 해저터널, 오이타현의 뱃부온천, 구마보토현의 아소산, 시모노세키 시청 방문, 카이교간(수족관) 등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교실 안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장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과의 지식을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 상주중학교의 일본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일본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과거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였고,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공동의 선과 이익을 위해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 유익했던 교육활동으로 보인다.

다만, 짧은 시간에 시모노세키 주변 몇 곳을 체험하고 일본을 다 안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겠지만 이제 일본의 관문인 시모노세키를 접수하였으니 일본을 아는 것과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체험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꿈을 꾸고 그 꿈 실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를 포함한 15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초청해 주신 강창수 이사장과 강창헌 이사를 비롯하여 함께하면서 자세한 안내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상주중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움을 기대해 본다.



관문대교를 배경으로 우리 일행



시모노세키 시청 방문 기념 촬영



효(孝)는 예쁜 습관에서……

김 유 경

마산 광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려병설유치원 2년차인 우리 아이가 늘 즐겁게 유치원을 다니는 것을 보면 새봄과 함께 제 마음도 설레입니다.

요즘 우리아이 유치원에서는 효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얼마 전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오더니 “엄마! 저 이제부터 존댓말을 쓸래요, 우리선생님께서 어른들께는 존댓말을 써야한대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날 이후부터 계속 어머니, 아버지하면서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앵두 같은 예쁜 입에서 말까지 예쁘게 하니 얼마나 귀엽던지……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왜 외할머니께 존댓말을 쓰지 않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 당황한 저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효는 예쁜 습관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라고 말하면서 심긋 웃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민망하고 난처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 흐뭇하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이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효제교육의 실천내용은 어른의 말씀에 공손하게 “예”하고 대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들이 무심결에 ‘응’하거나 ‘네네네네~’ 하며 장난하듯 대답하는 것을 듣고도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하며 부모인 나 자신부터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을 너무 쉽게 봐 준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되면서 효제(孝悌)라는 것이 오래된 책에서 하는 말이거나 특정한 세대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하는 기본(基本)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덕성을 기르기 위한 기본적인 효제교육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작은 실천이 모여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어 우리 아이들도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효제교육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매일 책을 읽어줌으로써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있으며,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사진과 글을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어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원장 선생님, 미소로 매일 아이들을 맞이하는 원감 선생님,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으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학부모로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마산 내서지역에 위치한 우리 유치원은 봄에는 벚꽃 눈을 맞으며, 여름에는 높고 푸른 산과 시원한 개울가가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가을에는 노란 은행잎을 밟으며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광려병설유치원입니다

우리 아이는 오늘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어머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하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유치원에 갑니다.

광려병설유치원은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숲의 고마움을 알게 해 준 지리산 자연 휴양림



정인혜

진주 중앙초등학교 6학년2반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여 엄마, 아빠와 함께 함양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휴양림으로 출발하였다. 청와대 푸른 누리 기자단이 되어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행 취재를 가기 위해서였다.

푸른 누리란, 푸른(희망) 누리(세상) 즉 앞으로 피어날 새싹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뜻으로 어린이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에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다. 작년이 1기, 올해가 2기인 셈이다. 첫 동행취재에 뽑히게 되어 몹시 설레고 기대가 되었다. 오늘따라 날씨도 무척이나 화창하고 곳곳에 피어있는 꽃들도 예쁘게만 보였다. 지리산 자락의 산들도 푸릇푸릇 봄의 기운을 맘껏 뽐내며 나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다.

오후 2시가 되어서 지리산 자연 휴양림에 드디어 도착했다. 다른 도시에서 온 13명의 친구들과 함께 숲 해설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숲속의 나무들도 관찰하고, 버섯, 이끼 등 야생에 핀 이름모를 꽃들도 보았다. 숲 해설가 선생님이 노오랑게 핀 꽃을 바라보며 저 꽃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숲 해설가 선생님께서는 저 꽃은 산에서 자라는 산 생강나무 꽃이라 하셨다. 정말 신기해서 냄새도 맡아 보았는데 정말 생강향이 났다.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하였다. 우리는 지리산에 있는 나무와 식물, 여러 가지 곤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서 한지 뜨기를 체험하는 장소로 갔다.

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뜰채에 뜨는 과정부터 하기로 했다. 선생님께서는 한지 뜨기를 앞으로 떠서 뒤로 빼내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떠서 그 반대쪽으로 빼내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다. 나는 설명을 들은, 그대로 따라 했지만, 자꾸만 한쪽으로 뭉쳐서 다시 끊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엄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고르게 잘 떠서 밀고, 말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 한지를 완성하게 되었다. 몇 번의 실수를 하여 한지를 완성해서인지 평소에 예사롭게 생각했던 한 장의 종이도 소중한 대담하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한 장의 한지에다 ‘시를 쓸까? 예쁜 그림을 그릴까?’ 하는 생각도 잠깐 동안 해 보았다.

이렇게 해서 한지 공예를 마치고 숲 해설가 선생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리산은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 활엽수가 많아 공기가 맑을 뿐더러 한여름에는 도시와의 기온차가 5도 이상이나 나서 시원하고 쾌적하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운 여름에 바다로만 갈 것이 아니라 지리산처럼 서늘한 휴양림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보내는 것도 멋진 휴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10%만 우리고유의 수종이고 90%는 수입된 수종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토종나무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일본의 나무들을 가져다가 많이 심어서 벚꽃뿐만 아니라 소나무나 대나무도 일본나무들이 많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나무를 잘 지키고 번식시켜서 우리 토종나무들이 많이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푸른 누리 기자들부터 모범이 되어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자연 만들기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 행사일정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해서 나는 감나무와 매실나무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받은 감나무와 매실나무를 우리 집 정원에다 심어 푸른 누리기자단에서 꿈을 키워 나가듯이 나의 나무도 잘 가꾸고 키워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지리산 자연 휴양림에 가 보고 싶다. 숲이 주는 고마움을 가슴에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날마다 우는 남자 / 저자 배만호



성복선

함안 칠원초등학교 교사

노란 산수유가 그 앙증맞은 자태를 하나 둘 드러내던 3월 중순, 산수유보다 더 노란빛의 봄소식이 전해졌다. 지인이 처음으로 책을 내어 출판기념회를 여니, 와서 그 기쁨을 함께 하자는 초대장이었다.

‘날마다 우는 남자’ 이 책의 저자 배만호씨는 나의 대학선배다. 아니 선배가 진주교대를 졸업하지는 않았으니 한때, 나의 대학선배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앞서 다른 대학을 다닌 경험 등으로 동기보다 두어 살 많은 나이로 문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품은 채 국어교육과를 다니던 선배…… 비가 오는 날이면 살이 구부러지고 더러 찢어지기까지 한 우산을 쓰고 다니며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고, 그러한 남다름을 즐기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 세상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쏟으며 살아가던 선배는 결국 제도권교육에 대한 허무감과 문학에 대한 열망을 어찌하지 못한 채 교육대학을 자퇴하고 고단한 삶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다.

대학 3학년 봄날, 문학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던 나는 동아리 선후배들과 하동 악양으로 모꼬지를 떠났다. 김용택 시인으로 인해 우리들이 특별히 더 좋아하게 되었던 섬진강과 만호 선배네 고향집이 있던 하동.

하동읍에서도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했던 악양면과 면소재지에서도 마을버스를 타고 꼬불꼬불 더 올라가야 했던 등촌리, 그곳에 울망졸망한 집들과 산과 실개천과 반색하는 노부모님이 계셨더랬다. 아들의 친구들이 놀러왔다고 선배의 어머니께서는 텃밭의 시금치를 베어오시라, 마당 한구석에 따로 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라 오후내내 부산

하셨다. 벌써 12년 전 일이니 아스라한 기억이 더 많지만 그래도 선명한 영상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 겨우내 편썰어 말려두었던 고구마와 자주색깔의 큼지막한 콩을 넣어 달콤하게 끓여내어 오신 고구마죽. 하지만 잣 스물을 넘긴 후배들이 그 소박한 맛을 몰랐던 탓에 고구마죽은 인기가 없었다. 늙으신 어머니의 정성과 회장이라는 책무성(?) 때문이었는지 나는 그날 고구마죽을 두그릇 넘게 먹었다. 나는 콩이나 팥 종류를 싫어해서 팥빙수도 안 먹는 사람인데……. 팥보다 훨씬 굵은 자주빛 그 콩들의 서걱거림이 아직도 입 안에 맴도는 듯하지만 12년전 그 해 봄날은 참으로 환하고 따스하며 아름답게 기억된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마추어의 냄새가 다소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읽는 중에 나도 모르게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이 문장에서는 이 꾸미는 말이 더 자연스러웠을텐데’ 하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느끼 듯 멀끔한 겉모양새나 우수같은 말솜씨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하느냐가 아니라 그 알맹이가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들 삶에서 가끔씩은 혹은 그보다 더 자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 돌아보고 고민해 보아야 하는 꺼리들이 많이 담겨있다. 자서전 형식으로 이야기기가 이어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소신껏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자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그 누가 있겠나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교사들의 가치관, 인생관은 다른 이의 그것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이 책에서도 저자는 초등학교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교사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때때로 그것이 인생의 행로를 바꾸기도 했다고 한다.

나를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애써 외면하는 부분 없이 낮은 곳, 상처 난 곳, 높은 곳 두루두루 돌아보며 따스한 마음과 시선으로 교단에 머물기를 희망한다.

나의 이메일 클로징멘트는 ‘당신의 마음에 맑은 물결이 되어……’ 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 하나가 모두 맑은 물결이 되어 타인의 마음 속에서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나는 ‘날마다 우는 남자’ 이 작은 책 한권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맑은 물결이 되어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죽음의 무도 (La danse des morts)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풍자로 극복하려 한 정신을 담은 음악—



강 은 령
창원 사파초등학교 교사

피겨의 요정이라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경기에 사용되었던 배경음악까지 덩달아 유명해지게 되었다. 2009년 4대륙 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멜로디를 기억할 수 있게 된 ‘죽음의 무도’. 카리스마 넘치는 안무와 역동적인 율동, 특히 맨 마지막 누군가를 응시하는 날카롭지만 유혹적인 시선까지, 검은 원피스를 입은 김연아 선수의 악마에 홀린 듯한 연기와 완벽한 테크닉의 이미지는 ‘죽음의 무도’에 등장하는 악마들의 축제를 연상하게 한다. 물론, 경기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구성으로 편곡한 버전을 3분 정도로 압축하여 사용했지만, 원곡은 7분여에 이르는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장대한 곡으로 1874년 생상스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정신을 대변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1. 까미유 생상스(Camille Saint-Saens) - 1835~1921

183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으며,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전해지며 작곡도 바로 시작할 정도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졌던 그는 흔히 모차르트의 유년시절에 비유되곤 한다. 13살 때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여 16살 때 이미 교향곡 1번을 작곡할 정도로 그 능력이 대단하였으며 이후 교수로 활동하면서 후진양성에 힘을 썼다. 작품에는 ‘삼손과 데릴라(Samson et Dalila)’를 비롯한 13편의 오페라와 ‘교향곡 3번’ 등이 있다.

2. ‘죽음의 무도’ 작곡의 배경

이 곡은 프랑스의 시인인 앙리 카잘리스의 시에서 착상한 것으로 중세 시대의 죽음에 대한 풍자에서 비롯되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당시, 중세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죽음을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삶의 일부이자 보편적 현상으로 묘사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죽음의 무도

앙리 카잘리스

한 밤중의 묘지에
죽음이 발 뒤꿈치로 묘석을 두드려
박자를 잡으면서
낱아빠진 바이올린으로 무도곡을 켜다.

고목가지에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
신음 소리는 보리수 아래로부터
점점 크게 들리고
깜마른 해골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춘다.

뼈와 뼈가 부딪치는 소리
음산하게 들려온다.
언뜻 닭 울음소리
새벽을 알리면
해골들은 춤을 일제히 멈추고
허둥거리며 도망쳐 버린다.

3. 다양한 악기를 절묘하게 활용한 악곡의 표현

생상스는 이러한 상황들을 악기의 특성을 잘 살려 표제 음악으로 주제를 잘 표현하였다. 하프의 스타카토로 밤 12시를 가리키는 도입부를 표현하였으며 죽음의 악마를 상징하는 바이올린 독주를 중심으로 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하여 왈츠는 점점 더 강렬하게 연주되어 나가며 그 당시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목금으로 뼈와 뼈가 부딪치는 효과까지 구현해낸다. 광란의 축제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 수탉의 울음소리를 묘사한 오보에의 스타카토가 등장하면서 죽음의 무도는 다소 황급히 사라지며 끝을 맺는다.

‘죽음의 무도’는 우리 나라에서 김연아 선수와 함께 유명세를 탔지만, 배경이 된 정신이나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실감나는 표현이 독특한 작품이다.

옛날에

어제의 젊음이 오늘 오후엔 숨어버렸다
 흑다이야 고무신 위 지푸라기 메고
 돼지오줌통 축구공 차던 날
 가을 하늘은 무척이나 파랗던 거야

산위에 소 올려놓고
 언덕 위 호박 한 덩이
 몰래 따서 쓱 다 빼내고
 양대 가득히 집어넣어 돌담불 짚어놓으면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불렀던 거야

이른 새벽 개똥망태 어깨 메고
 동네 한 바퀴 설치던 날
 바로 엇그제인성 싶다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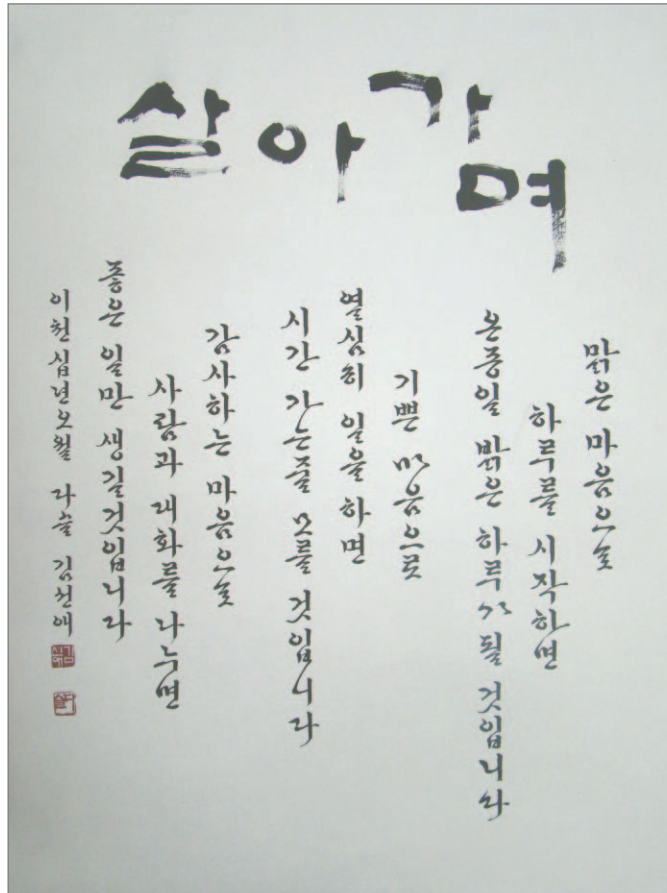
지난밤 어릴 적 고향 생각에
 한얀 밤 되었던 것은
 다가오는 날들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음이고
 서리서리 떠오르는 아름다움은
 아직도 젊다는 확인이란다.



차진복

- 현 창원 대원초등학교 교감

작품명 : 살아가며(한글서예)



김 선 애

- 현 창원 용지초등학교 교사
-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
- 경남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
- MBC 여성취호대회 초대작가 및 심사
- 교원 예능 경진대회 1등급
- 신시임당 취호대회 차하

도시가 부럽지 않게, 우리도 마음껏 배웁니다!

도시가 부럽지 않게,
우리도 마음껏 배웁니다!

“ 내일 저는 과학발명대회에 나갑니다.
 제 짝꿍은 다음 주에 도시에서 열리는
 영어말하기 대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시골에 살아도 좋은 선생님들과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

배움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으로
 나의 즐거운 공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보석처럼 펼칠 수 있는 나라
 내가 사는 대한민국 교육의 오늘입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교육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 힘이 더 커지고 강해지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